

마음껏 유명 못하는 남방큰돌고래들

서귀포시 대정읍 노을해안로서 관광선박 성행 50m 이내 접근금지, 300~500m 스크루 정지해야 규정 위반 목격해도 입증 쉽지 않아 단속 한계

“배가 돌고래 뒤를 계속 쫓아다녀요. 저렇게까지 하면서 돌고래를 봐야 하나 싶네요.”

지난 16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노을해안로, 'DOLPHIN TOUR(돌고래 관광)'이라고 적힌 관광선박 두 척이 모습을 드러냈다. 얼마 안 가 수면 위로 돌고래의 지느러미가 보였다.

선박은 돌고래를 발견하자 잠시 멈춰 섰다. 그러나 돌고래 수가 4~5마리로 늘어나자 선박은 돌고래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돌고래들은 다가올 위험을 아는지 모르는지 물 위로 점프하며 헤엄쳤다. 이어 두 척의 선박은 돌고래 무리를 따라가기 위해 뱃머리를 돌리고서는 운항해 온 길로 되돌아갔다.

현재 대정읍 해상 일대에서 돌고래 관광선박을 운영하는 업체는 3곳 이상으로 추정되며, 약 8척의 배가 매일 이곳에서 운항된다. 또 제주시 환경면 고산리 차귀도에서 출발하는 배낚시 어선들도 대정읍 해안에서 돌고래 관광을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가 서식하는 대정읍 노을해안로 인근 해상을 중심으로 '돌고래 요트 투어'나 '돌고래뷰(view) 배낚시' 등이 관광상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돌고래 서식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병영 제주대학교 고래해양생물보존연구센터장은 “조음파로 교류하는 돌고래의 특성상 선박의 소음이 주는 스트레스가 크고, 출산과 육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임신한 돌고래가 스트레스로 유산을 하고, 출산을 하더라도 갓 태어난 새끼들이 죽는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고래해양생물보존연구센터가 집계한 갓 태어난 새끼 남방큰돌고래의 사망은 2022년 1마리, 2023년 2마리, 2024년 10마리, 2025년 5마리로 확인됐다.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2023년 4월 개정된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선박은 남방큰돌고래 50m 이내로 접근



지난 16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 노을해안로 인근 바다에서 관광선박이 남방큰돌고래에 접근하고 있다.

근할 수 없고, 300~500m에서는 선박의 스크루를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규정 위반 입증이 쉽지 않아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제주도에 따르면 법 개정 이후 3년 넘도록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는 2023년 3건, 2025년 1건 등 4건에 불과하다. 도 관계자는 “최근에도 접수된 신고가 많아 도선사회회 등 외부전문가에 의뢰해 법적 기준에 따른 규정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규정을 준수하더라도

악영향은 여전하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남방큰돌고래는 수심이 얇은 조건대에 서식해 선박이 쫓아오면 육상에 가깝게 몸을 피해 압박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상시 모니터링을 하며 올해 신고한 규정위반 건만 8건에 이르고, 관광선박만큼이나 낚시어선들도 규정 위반이 잦다”며 “시민들이 신고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신고 창구를 알리고, 규정 위반 발견 시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전국체전 성공 기원 도민 화합 콘서트

7월 8일 한라체육관서... 3000여명 참석 예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 8일 제주한라체육관에서 '제107회 전국체전 및 제46회 전국장애인체전 성공 기원을 위한 도민 화합 콘서트'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제주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도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도민, 체육인, 전국체전 서포터스 등 3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1부 기념식에서는 제주 체전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결의문 낭독, 기념사, 축사 등이 이어진다.

특히 메달리스트가 참여하는 디지털 성화 릴레이와 미래세대 선수의 성화 점등 퍼포먼스를 통해 화합과 포용의 메시지를 전한다.

2부 본 공연에서는 제주 로컬 밴드인 '감귤서리단'을 비롯해 아이돌 그룹 '피프티피프티', 힙합 듀오 '다이나믹듀오' 등이 무대에 오른다. 콘서트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관람을 희망할 경우 오는 19~25일 7일간 전용 링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관람자를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장애인)체전 공식 누리집, 공식 사회관계망(SNS)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민기자

서귀포시 문화광장 분수 20일부터 가동

9월까지 오전 11~오후 7시 쿨링포그·자동 그늘막도

서귀포시가 문화광장에 설치한 바닥 분수와 쿨링포그를 오는 20일부터 본격 가동, 무더위를 식힌다.

시는 이른 무더위에 지친 시민과 관광객에게 시원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귀포시 문화광장 내 바닥분수와 쿨링포그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바닥분수는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가동되며, 30분 운영 후 30분 멈추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여름철 광장을 찾는 어린이와 시민들에게 도심

속에서 무더위를 식히며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시원한 휴식공간이 될 전망이다. 특히 분사 노즐 25개를 통해 최대 2~3m 높이까지 물줄기를 분사하며 청량감을 더한다.

또한 광장 산책로와 휴게공간 주변에 설치된 쿨링포그는 미세 물입자를 분사해 주변 체감온도를 최대 3~5℃ 낮추는 역할을 한다.

야간에는 바닥분수와 경관조명이 연동 운영돼 시원한 휴식공간은 물론 다채로운 야간 경관을 연출. 시민과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시는 이달 중 기온과 풍속 등을 자동으로 감지해 개폐하는 스마트그늘막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지진안전 인증 비용 지원... 한 곳당 최대 36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 건축물이 국토안전관리원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획득할 경우 소요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수수료 등 건축물 1곳당 최대 3600만원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신청을 오는 26일까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접수한다. 신청 순서에 따라 사업대상자가 선정된다.

한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은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국가가 공인하는 제도다.

인증 건축물에는 인증 명판이 부착돼 이용자들이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민기자

조기납세자 탐나는전 인센티브 지류형서 모바일로 전환

도, 1100명 추첨 통해 지급

제주특별자치도는 조기납세자에 대한 탐나는전 인센티브 지급 방식을 지류형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전환한다고 17일 밝혔다. 조기납세자는 정기분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납부 마감일 7일 전까지 낸 자로, 제주도는 이중 110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탐나는전을 지급한다. 제주도는 특히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는 정책 수당 지원 방식을 지류상품권 지급에서 모바일 기반 상품권으로 전환했다.

도는 지급 방식이 전환됨에 따라 지류상품권 우편 발송 등 수기 업무가 줄어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선정자는 '알림톡' 안내를 통해 보다 간편하게 인센티브를 수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모바일 정책수당은 즉시 전자

결제가 가능해 조기납세자의 이용 편의성도 높다고 덧붙였다.

양기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조기납세자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모바일 기반으로 전환해 납세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며 “성실납세가 실질적인 혜택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서귀포시 재활용도움센터 의류매각 입찰 공고

서귀포시가 올 하반기 재활용도움센터를 통해 배출되는 의류에 대한 수거·운반을 담당하는 업체 선정에 나선다. 시는 올해 첫 도입돼 추진 중인

재활용도움센터(84개소) 재활용 의류 매각 계약이 이달 30일 종료됨에 따라 하반기 계약 체결을 위한 공개 입찰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입찰 등록은 오는 23일까지 이뤄지며

낙찰자는 이달 말 최종 선정된다. 선정된 업체는 7월부터 12월까지 지역 내 재활용도움센터의 의류를 직접 수거·운반을 담당한다. 시에 따르면 재활용도움센터는 동부와 서부 등 2개 권역으로 나눠 수거업체를 선정하며, 매각 대상

품목은 재활용 의류와 원단류 등이다. 입찰 참가 자격은 제주도에 사무소를 두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관련 허가 또는 신고를 완료한 업체로, 반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재활용업 허가를 득해야 한다. 백금탁기자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숙편한,
다인'쿨고리'가 있습니다!

쿨고리의 장점

-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획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 가능
- 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 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 수확 후 회수도 간편.

쿨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당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